

# '제2기 전북학생의회' 구성한다

### 도교육청, 공개 추천형 10명 · 교육지원청 추천형 40명 등 총 50명 선출

전북도교육청이 제2기 전북학생의회 구성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전북학생의회는 공개추첨형 학생의원 10명과 추천형 학생의원 4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개추첨형 학생의원은 2024년 3월 1일 기준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초등학교 5학년부

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학생의원 지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소속 학교에 제출 후 전북교육청으로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공개추첨형 학생의원 선발은 오는 21일 무작위 공개 추첨으로 진행되며, 추첨 결과는 전북교육청 학생의회 누리집 및 개별 통보한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추천형 학생의원은 각 학교 대표 즉,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신청하면 학교에서 1인을 교육지원청에 추천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에 추천하면 된다. 한편 전북학생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학생

활동위원회 등 4개 분과로 구성, 교육정책,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의회는 학생들이 전북교육에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기구로 구성 단계부터 매우 중요하다"며 "선출 과정에서 대표성 · 공정성 · 투명성 · 객관성 · 자율성을 담보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바이오헬스케어 첨단 분야 인프라 구축 등 정보 공유

### 세계바이오혁신포럼, 8일까지 전북대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 사례 발표 마이크로바이옴 주제 사업화 논의 등

'2023 세계 바이오 혁신포럼(WBIF)'이 6~8일 3일간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바이오 헬스의 글로벌 NGO인 WBIF(대표 채수찬)가 주관하고, 전북도와 전북대 지역혁신센터,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첨단 분야 및 반려동물 헬스케어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먼저 1일차에서는 미국, 스위스 등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이날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참여해 전북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분야로 지정된 오가노이드 및 줄기세포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대해 기초과학연구원 오가노이드사업단, 강스탬바이오 테크, 그래디언트바이오컨버전스 등 바이오기업들, 오스트리아, 일본의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어 7일 포럼에서는 바이오 첨단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제로 하버드 의대 및 지놈앤컴퍼니, HEM파마 등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사업화를 논의한다. 또한 비교종양학 세션에서 사람과 동물의 암 정복에 대해 Galera Bio, ImpriMed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서울대, 건국대 등 국내 대학 연구자들이 함께한다. 3일차 포럼에서는 인체 및 산업 동물과 차별되는 반려동물용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미국 반려동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채수찬 WBIF 대표는 "2021년부터 전주를 거점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세계 바이오 혁신포럼은 첨단 분야 바이오 혁신을 논의하는 글로벌 포럼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바이오 헬스케어 후발 국가인 한국은 새로운 첨단 연구분야에 집중해야하며, 특히 반려동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전북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반려동물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를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개념개발보다 빠른 획득 · 전력 평가 필요"

### 국회서 글로벌 드론산업 활성화 포럼 박진배 전주대 총장 "기술 연구 등 매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을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김병주 · 박찬대 · 안규백 · 양경숙 · 장경태 의원과, 47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관련 부대 방산업체 경영진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군사 무인전투체계 전문가 세 명을 초청, KAIST 조상근 교수는 작전적 차원의 유무인 전투체계 설계를, 육군본부 이장인 박사는 기술적 차원의 How to Fight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정찰드론과 자폭드론으로 잘 알려진 무인기 제조사 에어로바이런먼트 홍요섭 한국 대표가 2016년부터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준비된 드론 전쟁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후 조진일보 유용원 기자를 좌장으로 한국화이바 조상호 부사장, 현대로템 김석환 실장, 최현호 군사 칼럼니스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은 우리 군



전주대학교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을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의 드론 능력이 미국, 중국은 물론 터키, 우크라이나보다 뒤쳐진 것을 언급하며, 개념개발보다 빠른 획득과 전력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배 총장은 "드론은 이제 우리 미래 사회의 필수적인 국가 중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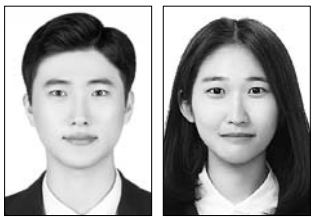
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국회 포럼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드론 분야 전문 인재 양성 및 기술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연구학교 운영 재추진

### 도교육청, 교육부 요청 ·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 19일까지 미래교육연구원으로 신청... 29일 결과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연구학교 운영을 재추진키로 했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23년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 12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 9개교와,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39개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연구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보다 연구과제에만 치중하거나, 일부 교사들의 무임승차에 따른 업무 부담이 재현되지 않도록 연구학교 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구학교 운영을 재추진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에서 연구과제를 구현하고, 교사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모범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연구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에서 연구학교 운영 수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미래교육연구원이 연구학교 공모 및 운영 · 관리 등을 담당한다. 연구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9일까지 미래교육연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29일 연구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재추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길러주는 것과 우리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학력 · 수업 · 인성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으로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송유훈 · 조혜원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 전력기술 분야 학술대회서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전력망연구실 대학원생들(지도교수 국경수)이 전력기술 분야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최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송유훈 박사과정생과 조혜원 석사과정생이 각각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먼저 송유훈 박사과정생은 '노르웨이 전력계통의 AS시장 참여를 위한 BESS 운영 전략 개발 사전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조혜원 석사과정생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충계획을 고려한 주파수제어비력 요구량 선정 사례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를 지도한 국경수 교수는 "전력망연구실의 이번 연구 성과가 최신 전력산업 이슈에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고, 산학협력 기반 연구를 통한 전문 분야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며 "앞으로 에너지전환 시대를 선도할 전기에너지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 제3기 신입생 모집

### 11~20일 신청접수 내년 1월 5일 구술고사 거쳐 12일 합격자 발표 병해충 진단 · 동정 · 방제 전문인력 양성, 현장인력 재교육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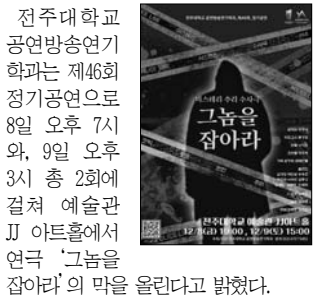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식물방역대학원이 제3기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식물방역대학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전북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뤄 설립한 특수대학원이다. 특히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병해충을 진단 · 동정 · 방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인력의 재교육도 수행한다.

접수는 11~20일이며, 2024년 1월 5일 구술고사를 거쳐 1월 12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입학원서는 식물방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pg.jnu.ac.kr/gpg/index.do>)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한편 식물방역대학원은 주관대학인 전북대가 AI기반 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경북대는 검역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을, 전남대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적 방제 기술 개발을 맡아 분야별로 전문 교

육이 이뤄진다. 병해충의 예찰은 전북대, 검역은 경북대, 방제는 전남대가 맡아 3개 대학이 공동과정을 운영하며, 온라인 및 대면 실험실습 수업으로 운영된다. 식물방역대학원장인 백승우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식물방역대학원은 병해충 관리 및 검역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의 현장문제를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신입생들이 병해충 검역 및 관리 분야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커리큘럼을 더욱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공연방송연기학과, 정기공연 마련

### 연극 '그놈을 잡아라', 8-9일 예술관 JJ아트홀서



전주대학교 공연방송연기학과는 제46회 정기공연으로 8일 오후 7시와, 9일 오후 3시 총 2회에 걸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연극 '그놈을 잡아라'의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서울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춘천국제연극제 등에 참가해 수상 받은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이다. 이에 따르면 연극 '그놈을 잡아라'는 극단 드림시어터컴퍼니 소속 정형석 작가의 작품으로 지방의 소도시 총주회 한동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조용두 형사와 그의 팀원들 그리고 의문의 사나리오 작가 남지운과 사건에 연루된 19명의 용의자가 등장하여 실마리를 풀어가는 작품이다. 잡히지 않은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

하는 과정에서 주는 재미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 작품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공연으로 느끼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기획 의도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시각의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죄를 짓고도 선한 양의 가짜 탈을 쓴 채 우리 곁에서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범인들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출을 맡은 공연방송연기학과 이기훈(3년) 학생은 "9월 중순부터 18명이 모여 정기공연을 준비했다"며 "공연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지금 류경호 지도교수님과 함께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여드릴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며, 온라인 예약과 현장 예약이 가능하다. 공연 관련 문의는 전화(063-220-324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국립군산대 조산해양공학과 NAOE Day 행사 성료

국립군산대학교 조산해양공학과는 최근, 종합교육관 2층 대강당위강의실에서 NAOE Day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졸업생들이 적극 참여해 재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NAOE Day는 학생들의 취업 및 경력 개발을 위한 특강, 워크숍,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문과 실무를 결합시키고,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최되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졸업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재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취업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졸업생 발표자로 최민환 매니저(현 대우종합공사), 신혁중 대표(계스트보트)가 참여해 자신의 취업 경험, 성공 사례, 실재에서 얻은 교훈 등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실무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자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군산=김관근 기자

## 내년 교육영상자료 개발위원 공개모집

### 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에듀테크 SW 활용법 등 분야별 11~18일 신청... 위원당 5~10편 이내 등 내년 1월부터 제작

전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이 2024년 교육영상자료 개발위원을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교육영상자료는 총 60차시로 위원당 5~10편 이내, 차시 당 10분 내외로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래교육연구원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게 된다. 공모분야는 △에듀테크 SW활용법 △AI · 로봇 코딩교육자료 △학생용 스마트기기 활용 △스마트철관 활용법 등 교사 디지털 역량강화와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영상 등이다. 이와 함께 △저경력 교사 및 저경력 지방공무원을 위한 멘토링 콘텐츠 △교무 · 행정업무지원 및 학교업무 간소화 지원을 위한 콘텐츠 분야도 공모한다. /장은성 기자

공모기간은 오는 11~18일며, 전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은 콘텐츠 주제 및 시나리오, 영상보조자료 등을 작성해 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지원부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영상(http://vod.jeduk.or.kr) 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50-3821, 3825)로 문의하면 된다. 장익 원장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할 교육자료를 제작하거나 디지털 기반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영상자료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가진 우수한 교직원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